



◇최근 도심포교당을 중심으로 부부법회, 가족법회 등 온가족이 참여하는 법회가 늘고 있다. 불자 가족이 함께 조계사를 참배, 기도를 올리고 있다.

가족법회 뿌리내리고 있다

가정화목 · 불교생활화의 밑거름

“지상귀멸에 삼계도사 사생 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지난 일요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역촌동 삼보사(주지 지원) 삼천불전이 예불소리로 가득하다. 조용한 분위기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남편과 아내는 두손을 모으고 네살배기 꼬마는 엄마의 옷자락을 붙든 채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법당에 모인 사람들이 마치 한가족처럼 목소리를 맞춰 가족법회를 시작하고 있다. 엄숙하면서도 화기애애한 가족법회 모습이다.

정안에서 정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서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한층 가중시켜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서울에서는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법회가 늘고 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새롭게 다지는 가족법회는 도심 포교당을 중심으로 각 사찰로 급격히 퍼져 실시되고 있다.

양재동 구룡사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30분에서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가족법회를 열고 있다. 역삼동 강남포교당도 지하 대법당에서 가족들이 동참하는 일요일법회를 열고 있다. 폭동 법안정사, 삼성동 봉은사 등 각종 사찰의 각 사신당도 매주 일요일 오전 일요일법회를 통해 가족을 중심으로 융합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가족법회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법회로 주목되고 있는 법안정사(원장 현도)의 부부법회, 매일 첫째 토요일에 열리는 부부법회는 지난해 10월 첫법회를 시작으로 매월마다 2백여쌍의 부부법자가 참여해 오고 있다.

이같이 가족법회가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일요일법이 늘어난 데서도 연유하고 있다. 산악사회에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불자들이 그나마 여유있는 시간은 일요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 엄마와 아빠, 아들과 딸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께 참배하고, 스님들께 상담도 하고, 같은 불자들이 만나 불교예를 나눌 수 있는 수행의 장이 바로 일요일 열리는 가족법회인 것이다.

양재동 구룡사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30분에서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가족법회를 열고 있다. 역삼동 강남포교당도 지하 대법당에서 가족들이 동참하는 일요일법회를 열고 있다. 폭동 법안정사, 삼성동 봉은사 등 각종 사찰의 각 사신당도 매주 일요일 오전 일요일법회를 통해 가족을 중심으로 융합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가족법회는 불자들에게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함으로써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을 형성하고, 신앙으로 결합된 가족과 가족이 법회속에서 다시 만나 신뢰와 웃음이 있는 이웃을 만들어 간다. 이처럼 가족법회는 개개인 불자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로 퍼져나감으로써 생활속의 불교를 심는 ‘불교의 생활화’에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족법회는 불자들에게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함으로써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을 형성하고, 신앙으로 결합된 가족과 가족이 법회속에서 다시 만나 신뢰와 웃음이 있는 이웃을 만들어 간다. 이처럼 가족법회는 개개인 불자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로 퍼져나감으로써 생활속의 불교를 심는 ‘불교의 생활화’에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족법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삼보사 주지 지원스님은 “일주일에 하루 온가족이 법회에 참석해 바른 신앙생활로 가

“다정한 사람끼리 손에 손잡고 부처님 곁으로 오십시오.” 사찰입구 계곡에 붙은 부부법회 참석안내문의 내용처럼 부부법회는 부부가 같이 법회에 참석함으로써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아내 혼자 오는 법회가 아니라 남편이 같이 함으로써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그것은 가족전체의 신앙공동체로 이어지고 있다.

가족법회는 불자들에게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함으로써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을 형성하고, 신앙으로 결합된 가족과 가족이 법회속에서 다시 만나 신뢰와 웃음이 있는 이웃을 만들어 간다. 이처럼 가족법회는 개개인 불자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로 퍼져나감으로써 생활속의 불교를 심는 ‘불교의 생활화’에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빠 엄마와 함께 절에 오니 참 좋아요.”

규진·규선자매는 부모님을 뵙러 가며 고사리손을 모아 연신 합장 인사하면서 법당으로 따라 들어간다.

“다정한 사람끼리 손에 손잡고 부처님 곁으로 오십시오.” 사찰입구 계곡에 붙은 부부법회 참석안내문의 내용처럼 부부법회는 부부가 같이 법회에 참석함으로써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아내 혼자 오는 법회가 아니라 남편이 같이 함으로써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그것은 가족전체의 신앙공동체로 이어지고 있다.

가족법회는 불자들에게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함으로써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을 형성하고, 신앙으로 결합된 가족과 가족이 법회속에서 다시 만나 신뢰와 웃음이 있는 이웃을 만들어 간다. 이처럼 가족법회는 개개인 불자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로 퍼져나감으로써 생활속의 불교를 심는 ‘불교의 생활화’에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족법회는 불자들에게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함으로써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을 형성하고, 신앙으로 결합된 가족과 가족이 법회속에서 다시 만나 신뢰와 웃음이 있는 이웃을 만들어 간다. 이처럼 가족법회는 개개인 불자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로 퍼져나감으로써 생활속의 불교를 심는 ‘불교의 생활화’에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세가지 마음의 구조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 안정되고 평화롭지만 평행이 갈수록 의외로 깨어지면 긴장이 오고 급기야는 병적인 증세를 일으킨다고 했다.

이런 세가지 마음의 구조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 안정되고 평화롭지만 평행이 갈수록 의외로 깨어지면 긴장이 오고 급기야는 병적인 증세를 일으킨다고 했다. 다른 한 주장은 의식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무의식이란 것을 가정하고 이 무의식이 의식 뒤에 숨어 인간의 행동, 정서, 사고등을 조종한다고 하는 이론도 내었다. 그래서 후자들은 그의 이론의 근간을 무의식론과 정신결정

이런 세가지 마음의 구조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 안정되고 평화롭지만 평행이 갈수록 의외로 깨어지면 긴장이 오고 급기야는 병적인 증세를 일으킨다고 했다. 다른 한 주장은 의식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무의식이란 것을 가정하고 이 무의식이 의식 뒤에 숨어 인간의 행동, 정서, 사고등을 조종한다고 하는 이론도 내었다. 그래서 후자들은 그의 이론의 근간을 무의식론과 정신결정

이런 세가지 마음의 구조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 안정되고 평화롭지만 평행이 갈수록 의외로 깨어지면 긴장이 오고 급기야는 병적인 증세를 일으킨다고 했다. 다른 한 주장은 의식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무의식이란 것을 가정하고 이 무의식이 의식 뒤에 숨어 인간의 행동, 정서, 사고등을 조종한다고 하는 이론도 내었다. 그래서 후자들은 그의 이론의 근간을 무의식론과 정신결정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이 현대의학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의 이야기다. 그 이전까지는 오히려 종교나 철학의 대상인 마음이 있었을 뿐 현대와 같은 시대의 마음은 연구되지 못했었다.

마음이 현대의학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의 이야기다. 그 이전까지는 오히려 종교나 철학의 대상인 마음이 있었을 뿐 현대와 같은 시대의 마음은 연구되지 못했었다.

마음이 현대의학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의 이야기다. 그 이전까지는 오히려 종교나 철학의 대상인 마음이 있었을 뿐 현대와 같은 시대의 마음은 연구되지 못했었다.

마음이 현대의학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의 이야기다.

마음이 현대의학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의 이야기다. 그 이전까지는 오히려 종교나 철학의 대상인 마음이 있었을 뿐 현대와 같은 시대의 마음은 연구되지 못했었다.

이러후 건강칼럼 < 1 >

마음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이 현대의학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의 이야기다. 그 이전까지는 오히려 종교나 철학의 대상인 마음이 있었을 뿐 현대와 같은 시대의 마음은 연구되지 못했었다.

이런 세가지 마음의 구조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 안정되고 평화롭지만 평행이 갈수록 의외로 깨어지면 긴장이 오고 급기야는 병적인 증세를 일으킨다고 했다. 다른 한 주장은 의식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무의식이란 것을 가정하고 이 무의식이 의식 뒤에 숨어 인간의 행동, 정서, 사고등을 조종한다고 하는 이론도 내었다. 그래서 후자들은 그의 이론의 근간을 무의식론과 정신결정

마음이 현대의학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의 이야기다. 그 이전까지는 오히려 종교나 철학의 대상인 마음이 있었을 뿐 현대와 같은 시대의 마음은 연구되지 못했었다.

안정 · 불안 등 모든 것의 근원

무쌍한 것이 바로 마음일 것이다. 근세 들어오면서 의학적인 관심이 신체과학처럼 가 시작되고 결과로 증명할 수 있는 원인추구에 힘을 기울인 나머지 마음이란 것도 추상적인 가설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프라이드라는 말이 알려진 정신분석학자가 마음을 구조적으로나 지형학적인 이론을 내세워 분별을 했는데 그는 소위 원본능이란 생체적인 본능적 충동을 갖고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통해 원본능의 과정을 인자와 초자아란 것이 발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후 <이대 신경정신과 교수>

- 1935년생
- 경북대 의대졸
- 대한법정신의학회장
- 한국석물연구회장
- 현재 이대 신경정신과 교수
- 저서 <정신분석학> <플로이드 플러터> 등

책방 如是我聞

이천만 불자들의 자랑입니다.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 전화 737-0695 · 팩스 737-0696

불법을 공부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공부 도중 왜 가슴이 아련할까요

감사한 날...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해진 팔자 운명이 있는지요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불법을 공부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절에 다니며 함께 공부하는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을 공부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경기도 의왕시·권남희)

공부 도중 왜 가슴이 아련할까요? 저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무어라 말하기는 어려워도 가슴으로 아련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과연 이것이 공부와 관계 있는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관련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요. (공주직할시 송정동·김문원)

감사한 날...어떻게 살아야 할지? 부처님 법과 인연이 닿기 전에만 해도 저의 생활은 매우 입담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학교라곤 국민학교 문턱밖에 못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하루 감사한 생각으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요. (서울 중랑구 면목동·구영순)

정해진 팔자 운명이 있는지요? 얼마전에 방편사 사기사건에 휘말려 자칫하면 곤욕을 치를 뻔했는데 다행히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운이 좋았다고 합니다. 정해진 팔자운명이 있는지요. (울산시 남구 옥동·박영술)

지상상담: 독자의 문제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앙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총무원 선원 대령스님께 맡겨서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본문: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6

이유없이 아프거나 되는일이 없거든 수맥을 막아라!!

수맥으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수맥 방지 매트

수맥은 과학입니다. 수맥의 기(氣)는 인체의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옛 우리 선조들은 집터나 묘터를 고를때 지관을 불러 수맥을 살펴 명당을 찾았습다.

수맥(水脈)의 위험? 지하에 흐르는 중력수(重力水)를 말하며 인체에 나쁜영향을 미치는 광물질이 모여 자기량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초고층상층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에 엄청난 피해를 줌

수맥의 유해파를 차단하지 않으면

- 혈압이 높은 분들은 90% 이상이 중풍에 걸려 고생한다.
- 어린 아이의 경우 자고나면 경기를 해 위험수위에 오름.
- 밖에 나와 활동할때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밤이되어 자리에 누우면 머리가 아프고 잠을 이루지 못함.
- 몸이 무겁고 온 몸이 붓는 경우
- 자고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잠을 잘때 잠을 설치고 뒤에서 일어나도 몸이 무거워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
- 매일처럼 두통·신경성 분해감 또는 신경통일 경우.
- 수험생일 경우 책을 봐도 정신집중이 안되고 산만해짐.
-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특별한 병명은 잡지 못하고 흔히 신경성으로 판정 받는 병.
- 임신한 분들이 수맥이 지나가는 방에서 기거하다가 배안에 기형이나 사산할 경우.
- 전체 인구중 수맥타는 체질 80% 이상이나 된다.
- 뇌성마비나 경박아·지체부자유등의 장애자 분들도 수맥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수맥을 알면 액운도 피할 수 있습니다. 수맥 연구가들은 인간 질병의 70% 이상이 집의 침실밀 혹은 조상 묘자리 밀의 수맥에 원인이 있다고 일치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손이 없는 “무연고 묘”는 반드시 그 밀에 수맥이 있습니다. “시름시름” 이유없이 아픈 사람은 반드시 수맥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맥의 유해파 차단-일파매트는

수맥의 유해파를 차단, 쾌적한 점자리를 제공하므로 매사에 활력있는 생활을 약속합니다. 저렴한 가격의 일파매트는 선물용이나 혼수용은 물론 효도용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발명특허원 제 2273호

전국 특약점 모집중

공급원 敏永實業
소비자상담실: (02)208-7974-5 부산(051)317-5155

SBS-TV 4월17일 「그것이 알고 싶다」프로에 수맥의 심각성 방영!

“이제 십만원대 가격으로 수맥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제품의 특징

- ① 본 매트는 수맥 방지판을 사용하여 제조되었으며 수맥의 기를 완전 차단합니다.
- ②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고자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 ③ 완전한 요(매트)로써의 기능을 다 합니다.
- ④ 보온 보냉성이 뛰어납니다.